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펴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나는 전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했고, 너희들은 그 좋은 소식을 받았으며, 너희들은 그 좋은 소식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2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가짜 행위가 생겼고, 또 위조된 신앙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기본적인 복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곳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슬며시 들어온 어떤 가짜 신앙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저들에게 그가 전한 기본적인 단순한 복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일들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 참 슬쁩니다. 그들은 곧 모든 것에 대한 비평가가 되어 결함을 찾는 비평의 열매를 그들의 삶 가운데 맺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로지 결점만을 찾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는 실제로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는 이러한 생각과 관념에만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더 이상 진정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단순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은 헛된 철학과 신학자들의 사소한 것들을 따지는 열매 없는 일들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지만 이러한 열매 없는 일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기 매우 쉽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지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체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아 비판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지체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며 언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너희는 계속해서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23) 그는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바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지우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4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분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에서는 주께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는 구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의 그림자들인 구약의 예징(豫徵)들로 알려진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창세기 22장),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하기까지 삼일 동안 이삭과 함께 간 것을 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함께 산으로 오르면서 사환은 산 아래에 두고 갔습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없습디다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되었다다, 그만하여라 하셨습니다. 보라,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리,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의 아들 이삭은 삼일간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 “네 아들, 네 독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시리라” 와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고한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일 동안을 주께서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마 예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5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어느 아침에. 복음서들은 언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에 열 두 제자들과 오백여 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란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 보다 나중에 거듭난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을 증거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 내가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께서서는 많이 용서 받은 자가 많이 사랑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황폐시켰으며, 강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교회를

무척이나 꺾박했던 그의 과거가 그에게 크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적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를 참 근심케 했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테전서 1:15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더 많이 용서를 받았기에 더욱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11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내가 너희에게 부활에 대해 전하는 것이나, 그들이 부활에 대해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나, 우리는 다 부활을 전하고 있도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복음을 내가 전했고, 너희가 받았으며,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전했고 너희가 믿었느니라.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 거짓 가르침입니다. 어디서 그것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영지주의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 안으로 살며시 들어온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장하기를,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없다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울은 강력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은 것입니다.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사함도 없고 구속함도 없습니다.

18 또한 (그 이상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언하는 것은,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여기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담을 따르는 자연인과 예수를 따르는 영적인 사람을 대조하려고 합니다. 아담을 따르는 자연인이 먼저 왔고, 예수를 따르는 영적인 사람들이 후에 왔습니다. 아담은 그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의 의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성품, 영에 속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은 아담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든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본성 그대로의 자연인이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사람이거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당신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17).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나쁜 성질은 얼마나 많이 잘 용서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옛 성품의 어떤 특성들을 그들의 특정된 인종에서부터 왔다는 사실로 돌리려하고, 옛 성품의 어떤 면을 승인함으로 용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글쎄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머리에 연합된 자들로서, 이제는 아담에게 연결되지 않았습시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옛 아담의 성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옛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새 성품을 가졌습니다.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갖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모든 이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2:5-1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셨지만, 이제는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예수를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실 때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의 교회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에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대환란에서 살아남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왕국을 통치하실 때는 이상적인 환경 아래 있게 될 것이므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전 아담의 때처럼 사람들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동안에는 이런 이상적인 환경 아래에서 공의로 통치할 때 이 지구에 굉장한 인구 폭발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의로 시행될 것이고, 우리는 집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철장으로 다스림 같이 통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살도록 강요될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의롭게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동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끝 무렵에는 사단이 잠깐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사단은 처치를 당할 것이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옥(Gehenna)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이 있을 것이며, 죽었던 불의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지옥(Gehenna)에 내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멸하여졌을 때,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환 주기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의지를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을 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동산에 있는 나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금지된 선악과의 과일을 먹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주에 한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왕국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즉 빛과 생명의 왕국과, 죽음과 암흑의 왕국인 사단의 왕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습니다. 아담은 죽음과 암흑인 사단의 왕국에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과 생명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죽음과 암흑의 사단의 왕국으로 옮겨졌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가져오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것이며, 그러면 다시금 이 우주에 빛과 생명의 왕국인 한 왕국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영원한 왕국! 우리는 영원히 그 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과 지옥은 화염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27 만물을 저의 발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분 아래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28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 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비워 고난과 죽음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물론 만물을 복종시켰던 그 분은 복종하는데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지만 아들이 기꺼이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다시 그분의 자리에 앉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실 것이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17:5절)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세기 1:26)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지 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주를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케 될 것이고, 그 때 아들도 그 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삽입했는데 참으로 혼동되는 것입니다.

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 없고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만일 죽은 자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받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해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 부분 말고는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언급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정하여졌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타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마한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도 않고, 또 영접하고 싶지도 않지만, 세례를 받기를 고집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세례 예식이 그를 구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신 일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면, 세례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행하신 일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일 뿐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 가지로,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가, 대신하여 세례 받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예식을 행하는 유일한 그룹은 몰몬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죽은 친척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으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말한 것에 대해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 고린도에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쓴 이 서신 전체는 사실상 많은 잘못된 교리들과 예식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믿고 가르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줄 만큼 너희가 바보스럽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너희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하기를, **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겠는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겠는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채찍질과 감옥에 갇힘과 이 모든 핍박을 직면해야 하겠는가?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실제로 바울이 맹수로 싸웠었는지 아닌지 혹은 에베소에 있는 맹수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냥 인생을 만끽하며 파티나 하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의롭게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희생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33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는 이러한 악한 사귀는 좋은 행실을 더럽히고, 그들을 부도덕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이런 부활이 없다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5 누가 묻기로 (바울은 이제 부활이 있음을 단언합니다) 바울이 부활이 있음을 단언하자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서신에(데살로니가전서 4:13-18),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신자들에 관하여 염려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왕국 시대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쓰기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사랑했던 자들을 다시 만날 때,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6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땅에 씨를 심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씨가 먼저 죽을 때까지 새 생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밭이라고 합니다. 씨는 밭이되거나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씨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형체가 나옵니다.

37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당신은 다 자라 활짝 핀 카네이션 꽃을 심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심는 것은 단지 씨입니다. 당신은 글라디올라스를 심지는 않습니다. 단지 구근만을 심습니다. 그것은 죽고 그것으로부터 새 형체와 새 색깔, 아름다움 그리고 향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죽은 씨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나타날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듯이, 나는 천국에서 이 몸으로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새 몸을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공부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은 나타날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밀이나 다른 알곡의 낱알을 심을 뿐입니다.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나의 새 몸은 어떤 모습일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뿐만 아니라 나 또한 분명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보다는 향상된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모습을 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심치 않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땅에서 글라디올라스 구근의 갈색 부분이 죽는 것과 아름다운 분홍색 꽃과는 어떤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둘 다 글라디올라스인데 두 형체 사이는 어떤 신비한 관계로 맺어져 있지만, 꽃은 씨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비한 관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관련할 바가 아닌 하나님께 관련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포는 죽어가고 그것은 다른 세포로 바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는 데에 있어서 현대 과학 기술로도 알 수 없는 문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마태복음 22:23-33절) 가로되,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는데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식이 없이 모두 죽었다 합시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그녀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어떤 터무니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고, 부활의 견해를 멸시하려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은 단지 흙과 화학적인 것들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멸시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몸이 화학적인 성분들로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가정 하에 내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 죽었다고 합시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솔개가 날아와서 나의 시신의 부분을 먹고 나머지는 흙으로 용해되어 풀이 자라났다고 합시다. 그 풀은 사실상 한 때는 내 몸의 부분이었던 이 화학 성분을 취하고, 이 풀은 또한 지나가는 소들이 먹고, 이 소에게서 우유가 나오며, 이러한 화학 성분이 함유된 이 우유를 다른 사람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 때 나의 몸을 이루었던 화학 성분들이 다른 사람의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날에 이 화학 성분들은 누가 갖게 됩니까?

만일 당신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면, 부활의 날에 누가 이 새 심장을 갖게 됩니까?

누가 심장, 폐 또는 신체 이식을 갖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의 견해에 문제가 생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그대로 나일 것이지만 몸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암시합니다. 진정한 나는 영이지,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단지 내가 나의 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몸을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질 때, 몸이 다시 흠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거주장스러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탄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22-23절)에서 말하기를, 피조물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있는 이 새로운 몸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육신에 여하튼 신비롭게 연결된 굉장히 뛰어난 형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DNA 분자들로 육체는 형성되어지고, 사람의 육체는 짐승의 DNA와 다르며, 이 짐승은 또한 새들과 다르고, 이 새들은 물고기와 다릅니다. 육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과 다릅니다.

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더 큰 별들과 다른 색깔들로 된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을 망원경을 통해 보면, 각 별들은 각자의 독특한 색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다 다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다시 씨뿌리기로 돌아가, **씨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 옥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지라도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 몸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사람의 혼은 아담으로부터 나오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아담 이신 예수께서 살려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아담이 예수님 전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흠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아담에게서 우리의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의 것으로, 땅에서 났으며, 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나와서 땅을 위한 육신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몸은 땅의 환경 조건에 맞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요한일서 (3: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졌던 몸과는 매우 다르고 뛰어난 것입니다. 그 몸은 다른 차원을 위해 계획되어진 몸이고, 또 그 몸은 중력 같은 자연의 법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부활될 몸도 매우 뛰어나고 다를 것입니다.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 옛 몸으로는 천국에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은 다른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그의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문맥을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격려하라.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그들과 함께 끌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1절에 요한은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에 교회가 휴거될 것을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가 휴거된 후, 대환란 기간 동안 나팔을 받아서 불려고 준비하는 일곱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 때 그것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머지 세 가지 화 중의 마지막 셋째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나팔소리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세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나팔소리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소리가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하여, 휴거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나팔을 불도록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들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휴거는 눈 깜박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소리, 심판의 나팔소리인, 이 일곱째 나팔소리가 나는 날은 여러 날 동안에 걸쳐 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는 화가 있을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려질 세 나팔소리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 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릴 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초자연력에 의한 변형! 몸의 변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야만 합니다. 이 육신은 부패해 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화작용이 생명을 잃도록 하고 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새로운 몸을 말합니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멋집니다! 죽음, 그것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55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이것이 사망을 만든 것이요 이것이 사망을 가져 온 것입니다. 허물과 죄 안에 있는 죽음, 이것이 사망의 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을 통하여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의 쏘는 것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게 서라! 강건하라!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여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일시적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전 생애를 한가지 일에 전심했지만 결국에는 다 허사로 돌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 기여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좌절되었습니까?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린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준다면 그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원하며, 영구적이고,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입니까?

그저 지나가고, 없어지며, 영구적인 가치가 없는 일에 당신의 삶을 다 바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영원한 일에 당신의 삶이 드러진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이 행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50명에게 복음을 증거 했는데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당신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당신에게 주님을 증거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증거 하는 것, 당신은 단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다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 주님! 당신과 함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님! 적의 공격에 견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